

2025년 제56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를 마치고

A Review of 2025 KMES Summer Conference

백재연*

Jae Yeon Paik

지난 8월 7일과 8일,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제56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음악교육, 변화에서 실천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회에는 음악교육 연구자와 유·초·중등 및 예비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음악교육의 새로운 시각과 실천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은 최진호 회장의 개회사와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이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이자 무용학자인 김승일 교수가 “몸과 소리의 통합을 위한 감성교육—이매방류 승무를 중심으로 한 무용·음악 통합교육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승일 교수는 전통예술 기반 감성교육의 사례를 통해, 몸과 소리,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통합적 교육의 가치와 실천 가능성을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대영 교수의 초청강연 “21세기 문화와 AI 시대의 예술교육의 미래”가 이어졌다. 이대영 교수는 디지털화, 비물질화, 글로벌 가상 네트워크, 그리고 AI 창작 도구의 확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를 조망하며, ‘사피엔스 5차 혁명기’ 속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제언을 나누었다.

오후에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및 대학원 가야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중앙가야오케스트라의 음악회가 펼쳐졌다. <민요 모음곡>,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 메들리>, <25현 가야금을 위한 옹헤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후 진행된 워크숍 세션에서는 이상희 수석교사가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적용한 창작 수업”을, 신정연 예술강사가 “강강술래의 예술 융합적 가치와 수업 실행 방안”을, 박범환 교사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에듀테크 융합 수업의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세 개의 강의실에서 음악교육 관련 연구 발표가 동시 진행되어, 현재 음악교육의 주요 흐름과 연구 경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김희철 지휘자(제주국제합창축제 예술총감독)의 “청소년 합창 지도법”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강의로 시작되었다. 김희철 지휘자는 2017년부터 이어져온 제주국제합창축제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2026년 예정된 행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청소년 합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허용 교사의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질문을 활용한 음악 수업”, 채성희 교사의 “우리 악 · 끼로 통하는 국악수업”이 발표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오후에는 남금희 · 이미희 · 이옥각 연구자의 포스터 세션이 열렸다. <Anton Diabelli Op.149를 활용한 초급 피아노 포핸즈 교수법>, <파워 시니어를 위한 웰빙 트랜드로서의 피아노>, <피아노 암보연주에 관한 연구> 등 피아노 교수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이후 교사들로 구성된 아카펠라팀 굿 펠라즈의 공연이 이어져 <Welcome to the Snow>, <몽계구름>, <우유와 피리>, <동요 메들리> 등 친숙한 곡들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이며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편, 행사장에는 지학사, 천재교과서, 미래엔, YBM 등 주요 출판사의 부스가 마련되어 다양한 교과서와 수업 자료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학회로, 참석자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음악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음악교육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대회는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학회의 발전과 더불어 음악교육의 미래를 향한 실천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